



'자원봉사의 천국'
대한민국을 꿈꾸며

새보람

SAEBORAM



2010년 하반기 주요 추진사업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15호

2010년 8월

공단(양경자) 사태 '끝장투쟁' 돌입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절대 굽히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고용공단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한나라당 지도부, '양경자 자진사퇴' 공식 촉구

장애인정책에 '큰 걸림돌' ... “사태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안상수 대표, 김정록 중앙회장에 '사태 해결' 재차 약속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지도부들은 지난 8월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한나라당 장애인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양경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의 용퇴와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사진-최고위원회의 모습) ©한나라당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양경자 이사장의 자진사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나서 장애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지난 7월 30일(금)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나라당사 6층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회장단과의 면담에서 “공단(양경자) 사태를 반드시 해결하겠

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김정록 중앙회장은 지난 11일(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주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소재한 레전드 호텔에서 열린 「2010년 장애인당사자 권리 찾기를 위한 정책결의 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공단(양경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답판을 지을 것”이라고 공언한 안 대표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이번만큼은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대표는 “양경자 씨

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사실은 재고(再考)의 여지가 없다”고 밝히며 “조금만 시간을 주면 장애인과 한 약속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안 대표의 약속은 한나라당 지도부의 ‘양경자 자진사퇴 선언’으로 이어졌다.

지난 8월 2일(월) 오전 9시, 여의도에 위치한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양경자 공단 이사장의 ‘자진사

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포문은 홍준표 최고위원이 먼저 열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양경자 공단 이사장이 장애인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으며, 정부나 한나라당의 장애인 정책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양경자 자진사퇴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전부 동의를 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양경자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문제(사퇴)를 정부가 조속히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공단(양경자)

사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두언 최고위원은 “애초 그런 인사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했고, 마지막으로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양경자 이사장 문제는 본인이 빨리 ‘용퇴’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양경자씨의 자진사퇴와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2~3면 계속>



장애계, 양경자 자진사퇴 전방위적 압박 돌입

양경자 지지 논리 반박...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보이콧' 초강수
언론, 정치권도 사퇴 한 목소리...김정록 중앙회장 "투쟁의 끝이 보인다"

■ 양경자 투쟁, 새로운 국면을 맞다.

장애계의 극렬한 반대 속에 한 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이 취임한지 두 달여가 지났다. 장애계는 지난 두 달간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왔지만, 공단(양경자)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월 11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소재한 레전드 호텔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주최로 열린 「2010년 장애인 당사자 권리 찾기를 위한 정책 결의 대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안상수, 홍준표, 나경원, 정두언 의원이 양경자 이사장 임명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이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 정두언 의원 "장애인 가슴에 못 박은 인사"

지난 7월 14일(수)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끝난 후 최고위원에 당선된 정두언 의원은 공단(양경자) 사태에 대해 "6.2 지방선거에 패배한 후 민심을 얻으려 발버둥을 쳐도 모자라는 판에 어처구니없는 인사로 장애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며 양경자 이사장의 임명을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당원과 국민들은 정부 여당에 대해서 낙담이 아니라 절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해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탄탄한 울타리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 의원의 발언을 시발점으로 '공단(양경자) 사태'에 대한 정치인들의 비판이 차례로 이어지게 된다.



양경자 이사장의 임명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인사로 장애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비판한 한나라당 정두언 국회의원.

■ 이상민 의원, "양경자 이사장 퇴진" 재차 촉구

지난 6월 24일(목) '장애계를 무시한 낙하산 인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양경자 이사

장의 임명을 비판했던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7월 19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양경자 이사장의 퇴진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장애인계를 비롯해 이제는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조차 양경자 이사장의 자진사퇴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작 양경자 이사장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장애인고용공단 직원명의의 양경자 이사장 옹호성명을 발표하는 등 자리보존에 애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양경자 이사장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는 일이고, 정부는 장애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사장 선임을 즉각 취소하고 장애인으로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 언론 가세, 양경자 '자진사퇴' 환목소리

양경자 이사장에 대한 장애계의 극렬한 저항이 계속되고, 정두언 의원 등의 정치인들이 정부의 잘못된 인사와 양경자 씨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지자 언론이 이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의 일간지면신문과 <오마이뉴스>, <에이블뉴스> 등의 인터넷언론 그리고 MBC를 비롯한 방송사에

서는 양경자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장애계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담긴 기사를 연일 쏟아냈다.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정부와 공단(양경자)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 장애계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장애계의 투쟁이유 및 과정을 전국 480만 장애인들에게 알리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 공단, '양경자 옹호' 성명서 발표

그러나 공단은 지난 7월 17일(토) '장애인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양경자 씨를 옹호해 비대위를 충격에 빠뜨렸다.

공단 측은 성명서를 통해 "양경자 신임 이사장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당시 저희 공단과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을 실질적으로 태동시킨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89년에 대표발의 하여 제정('90. 01. 13)했다"라고 밝히며 "양경자 이사장은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전문성,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을 적극 찾아가 설득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다"고 옹호하며 비대위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

■ 비대위, '양경자 지지 논리' 반박

공단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발 빠르게 움직였다. 비대위는 7월 19일(월) "장애인고용공단 직원들의 양경자 지지 성명은 장애인을 다시 죽이는 행위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하며 공단 측 양경자 옹호 논리의 대한 반격에 나섰다.

비대위는 먼저 "양경자를 거부하는 장애계의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공단의 한심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심사과정은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의 전문가이고 공단 이사장에 오르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공단의 논리라면 의료법을 개정한 사람이 건강보험공단을 맡아야 하고, 연금법을 발의한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의 수장이 되어야 할 말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으며 "양경자 씨의 전문성은 어디에도 검증되지 않았고, 당사자도 아니며 장애인에 대한 경험은 이사장직의 미치지 못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진실

〈표1. 13대 국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발의 상황〉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의결일	의결결과
13078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안(대안)	89.12.15	89.12.16	원안가결
130341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이인제의원 외 59인)	88.12.12	89.12.16	대안폐기
130331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이병희의원 외 34인)	88.12. 8	89.12.16	대안폐기
130309	장애자고용촉진법안(양경자의원등 3인 외 59인)	88.12. 7	89.12.16	대안폐기
130285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이철용의원 외 83인)	88.12. 2	89.12.16	대안폐기
130251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이철용의원 외 83인)	88.11.21	88.12. 8	철회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특히 비대위는 양경자 씨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대해 공단이 주장한 논리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양경자 씨가 발의한 법안은 정확히 <장애자 고용촉진법안>이었다. 법안 발의는 1988년 12월 7일의 일로 당시 모든 정당에서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이인제 의원 외 59인)>,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이병희 의원 외 34인)>,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이철용 의원 외 83인)>과 같이 양경자 씨가 발의한 것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었다.

비대위는 당시 이 모든 법안이 병합심리되었고 1989년 12월 15일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안>이 대안법률안으로 노동위원회 안으로 발의되어 1989년 12월16일 제147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비대위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안>은 양경자씨가 발의한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 것이 아니며, 당시 이철용 · 이인제 · 이병희 전의원의 노력과 당시 400만 장애대중의 노력을 양경자씨 개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 표-1> 참조

■ 비대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보이콧’

한편 비대위는 공단(양경자) 사태에 대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정록 중앙회장을 비롯한 비대위 회장단은 지난 7월 19일(월) 오전 8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실에서 열린 ‘제6차 비대위 회의’를 통해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7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보이콧(boycott)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비대위 회장단의 결정은 지난 달 30일(수) 발송된 ‘양경자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공문’

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480만 장애인을 기만하고 있는 공단과 고용노동부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공문에는 양경자 씨가 7월 9일(금)까지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제27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실력저지와, 오는 2011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2011 서울제8회 국제장애인올림픽’의 반대를 위한 서한문을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위원회(IAF)’에 발송하겠다는 비대위의 경고가 담겨져 있었다.

특히 비대위는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선수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이란 제목의 서한을 전국의 기능 장애인들에게 발송했다. 비대위는 이 서한을 통해 비대위의 투쟁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실력저지에 대한 기능장애인들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480만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안상수 대표 “양경자 사퇴, 재고의 여지없다!”

이후 비대위는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을 압박해갔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해 홍준표, 나경원, 정두언 최고위원이 지난 7월 11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공단(양경자) 사태의 해결’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7월 30일(금) 오후 3시 30분, 드디어 비대위 회장단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의 만남이 성사됐고,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비대위 회장단에게 “공단(양경자) 사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굳게 약속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정록 중앙회장은 “장애인연금, LPG 지원제도 폐지 등 현 정부 들어 장애인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양경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임명으로 480만 장애인들의 자존심은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공단(양경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답판을 지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안 대표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이번만큼은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안상수 대표는 “양경자 씨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사실은 재고(再考)의 여지가 없다. 현재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조금만 시간을 주면 장애인과 한 약속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라고 밝히며 사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안상수 대표의 약속을 환영한 비대위 회장단은 안 대표의 ‘공단 앞 농성 중단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8월말까지 공단 앞 투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투쟁의 끝이 보인다

전당대회를 통해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에 오른 안상수, 홍준표, 나경원, 정두언 의원은 공단(양경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한 양경자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사들이 언론매체에 연일 오르내리고 있다.

비대위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김정록 중앙회장은 “공단(양경자) 사태에 대한 작금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동은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진단하며 “이제



양경자 이사장을 옹호하는 공단 직원일동 명의의 성명서는 비대위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경

투쟁의 끝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다”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실제로 현재 양경자 이사장의 입지는 극도로 작아지고 있다. 지난 6월 30일(수) 김정록 중앙회장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회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상임대표가 공단의 비상임 이사직을 사직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41조 ④항」과 「공단 정관 제16조 ④항」에는 “공단의 상임이사과 비상임이사 중 각각 3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현재 공단은 향후 이사회 소집은 물론, 예산 및 결산, 운영 계획, 정관 변경 등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공단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장애계의 보이콧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과, 오는 2011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기능경기대회’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것 또한 양경자 이사장에겐 큰 고민거리이다.

특히 최후의 보루로 믿었던 여당에서조차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양경자 이사장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세간의 소문과 “투쟁의 끝이 보인다”는 김정록 중앙회장의 말이 그리 과장되어 들리지 않는다.

비대위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480만 장애인은 지금 길고 길었던 공단(양경자) 사태 투쟁의 끝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며 사태해결을 약속한 ‘한나라당’과 윤신의 폭이 극도로 제한된 ‘양경자 이사장’의 다음 행보를 예의주시하



지난 7월 30일 한나라당사에서 마련된 비대위 회장단과 안상수 최고위원과의 간담회에서 김정록 중앙회장이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을 만나 공단(양경자) 사태 해결을 위한 답판을 짓겠다”고 공언했던 안상수 대표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발행인 칼럼

‘자원봉사의 천국’ 대한민국을 꿈꾸며

미국은 지금 ‘경제대공황’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지표로 보면 아직 1930년대 대공황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미국인들은 “건국 이래 최대 위기”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을 정도로 경제적·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붕괴되었고 은행에

빚을 얻어 집을 장만한 미국인들 중 상당수가 파산했습니다. 할인점은 물론 유명 백화점까지 물건을 팔지 못해 아우성입니다. 몇 번씩 고쳐 쓴 가격표가 네 개, 다섯 개씩 물건에 덕지덕지 붙는 것은 보통이고 그래도 팔리지 않아 ‘청산세일(clearance sale)’에 들어가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실직자들이 모인 난민촌이 80여년 만에 다시 등장하고 무료급식소마저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미국인이지만, 자원봉사는 줄지 않고 있습니

다. 유에스에이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내 자원봉사 지원자는 오히려 크게 늘고 있으며 연방정부 봉사프로그램인 ‘아메리코어(Americorps)’ 지원 신청자는 올해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은 경제위기 때 자원봉사에 나서는 것을 2차 대전 때 당연한 의무로 여겼던 군복무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한 자원봉사단체 대표의 발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미국인이 자원봉사나 기부를 생활화하고 있다는 것이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한 지금은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교 교육프로그램에 돈을 쾌척하는 학부모나, 지역공공센터에서 자원봉사는 사람들을 보면 자원봉사나 기부는 시간과 돈이 남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제위기를 겪는 상황은 미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은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오르내리듯이 경제가 침체되면서 노인정과 고아원을 찾는 자원봉사활동과 지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가 단지 학생들이 ‘봉사점수’를 받기 위한 수단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홍보무대’로 전락해버린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아이비리그 다트머스 대학 총장에 한국계로는 처음 선출된 김 용 하버드대 교수의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자원봉사나 기부는 여유 있을 때 하는 적선이 아니라 부족한 나와 공동체를 ‘함께 채워가는 것’을 자각한다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조금 더 따뜻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자원봉사의 천국’인 대한민국을 꿈꾸어봅시다.

2010년 8월 10일
중앙회장 김 정 록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10월 18일 개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가 주최하는 「2010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이하 배우자대회)」가 오는 10월 18일(월)부터 19일(화)까지 1박 2일 동안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개최된다.

배우자대회는 자신의 장애로 인해 생활조차 힘든 중증장애인과 그 곁에서 항상 자신의 몸과 같이 그들을 지켜주는 배우자를 위로하고, 그들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전국적으로 홍보해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관심과 배려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 1994년에 시작해 올해로 10회째 열리게 된다.

대회의 초청대상자 선정 기준은 배우자의 장애급수가 1~2급(장애인 등록 필)이고 결혼생활이 만 3년 이상

경과한 장애인 부부로서, 지장협 16개 시·도협회장 및 232개 시·군·구 지회장(시설장)이나 전국 16개 시·도지사 및 232개 시·군·구청장(해당 시·군·구청 복지관련 담당 공무원도 추천 가능) 또는



‘2010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가 오는 10월 1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개최된다.(사진: 지난 2009년 열린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모습)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배우자(부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장협 중앙회의 배우자대회 담당자에게 문의(☎02-2289-4332)하면 된다.

해피빈 '사랑의 콩나누기' 모금 전달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창환, 이하 대구협회)는 지난 8월 4일(수)부터 5일(목)까지 양일간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해피빈 블로그’를 통해 모인 모금액을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2명에게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에 선정된 장애인은 부인과 사별하고 슬픔을 잊기 위해 컴퓨터 동영상편집 공부를 하고 있는 이준용(지체장애 2급·65)씨와 사회복지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영남사이버대에 입학하여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조경호(뇌병변장애 1급·46)씨로, 이준용씨에게는 중고 컴퓨터를, 조경호씨에게는 학비와 교재구입비 170여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대구협회 김창환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따뜻한 기부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문화를 형



대구협회의 직원이 지난 8월 5일 ‘해피빈 블로그’를 통해 모인 모금액 170여만원을 조경호씨에게 전달하고 있다.

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해 5월 포털사이트 네이버 해피빈 블로그(happylog.naver.com/domi.do)를 개설하여 지역 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명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주인은 누구인가?”

공단 이사장이 취임한 지 한참이 되었지만, 장애인 단체들의 반대로 업무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노조 직원들은 지난 7월 19일 “공단업무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하며, 장애인들은 고객이므로 주인인 노조 직원들이 장애인들의 외압에 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현 체제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최근 어린이 등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 범죄자가 설익은 과일을 따먹은 것이 무슨 큰 죄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 가해자는 여성을 따먹는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노조의 논리도 그러하다. 이사장 심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조작이 있었고, 그러한 정의감에 눈 감고 있다. 출근 시간이 급하니 단추를 잘못 끼운 것도 지퍼를 올리지 않은 것도 무시하고 출근부터 하잔다. 출근 시간이

늦으면 그 불이익을 어찌 감당하겠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거늘, 장애인은 고객이고 자신들이 주인이란다. 장애인의 고용 업무를 맡아 일할 책임을 가지고 위임받은 사명을 가진 자가 주인이 되어 버린 것이다.

도대체 어느 법에서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그 동안 장애인을 고객으로 보고 장애인을 상대로 장사해 먹었음을 자인하는 말인가! 장애인을 대상화하고 영업이익을 기업들이 공동 부담하는 그런 ‘안전빵 불공정’을 했던 말인가!

세상에 낙하인사를 지지하고 진정한 국민의 입장과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노조는 단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 정당성이 결여된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어용 노조’일 수밖에 없다.

공단은 장애인 고용을 위해 기업으

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관리하면서 직원 1인당 1억원 이라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다. 맡겨 놓은 생선을 고양이가 다 먹고 있다. 그러한 고양이가 맡겨 주지 않으면 고기가 썩어 없어진다고 빨리 맡기란다.

직원이 주인이고 장애인은 고객이란 주장은 구시대적 군사정권에서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요, 그런 화석화된 사고를 가진 자가 공단을 맡고 있으니 현재의 공단의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죽어버린 정물화 앞에 말을 거는 우리가 답답하다. 장애인의 참여가 없는 정책, 장애인의 결정권이 없는 주는 대로 먹이는 공단은 해체되어야 한다.

장애인 고용 1인당 250만원의 비용을 물 쓰듯이 쓰면서 그 비용을 못 쓰니 빨리 정상화하여 돈 좀 쓰게 해 달란다. 고용 유지가 불과 몇 달에 그치는 지 알 수도 없다. 우리는 반드시 당사자가 최고 책임자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비효율성을 정확히 감시하고자 한다.

정의와 참여는 실적보다 우선된다. 그런데 실적조차도 장애인에게 도대체 무엇을 했다고 정상화되지 않으면 장애인에게 피해가 감을 논한단 말인가! 진정 그러한 피해를 걱정한다면 노조 역시 장애인에게 힘을 보태야 마땅하다. 정의를 외면하고 비위나 맞추는 나약한 노조가 주인이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부풀려진 실적과 발 굴 장애인의 고용실적으로 장애인을 우롱한 공단이 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위상이 땅에 떨어졌는지, 장애인에게 불신을 받고 원망을 듣고 있는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진정 염려한다면 말을 보내지 말고 맡은 소임이나 묵묵히 하고 있기를 바란다.

양경자는 낙하산의 위력만 믿고 장애인을 기만하고 아집에 사로잡혀 현 정부에도 부담과 누를 이미 끼치고 있다. 약정 계약을 했으니 장애인들의 의사에 무관하게 자신이 피를 빨아먹고 나가겠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합당하게 찾으려는 것이고, 불이익과 손실이 두려워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2010 지체장애인 래프팅 체험 행사’ 실시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 이동석, 이하 울산협회)는 지난 7월 23일(금) 경북 봉화 낙동강 래프팅장에서 ‘2010 지체장애인 래프팅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스포츠를 통해 울산장애인들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체장애인 간의 공동체 의식을 드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울산시 지체장애인 420여명과 울산시 공무원, 울산장애인후원회(회장 안규호), SK에너지(주) 노동조합(위원장 윤상결) 조합원으로 구성된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울산협회의 이동석 회장은 “이번 행사는 래프팅을 통해 장애인들의 힘든 삶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됐다”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평소 접해보기 힘든



지난 7월 23일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한 ‘2010 지체장애인 래프팅 체험 행사’에 참가한 장애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래프팅을 체험하고 있다.

스포츠인 래프팅을 체험한 장애인들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행사에 참여한 이영균(38, 지체장애1급) 씨는 “오늘은 건강했던 나의 지난날을 떠올리게 하고, 현재의 나를 돌아보게 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런 행사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울산협회는 지체장애인들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해병대체험, 주전 바다체험, 래프팅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울산시와 울산시장재인후원회의 후원으로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실시해 왔으며, 2009년부터는 SK에너지(주) 노동조합이 래프팅 소요 경비 지원과 자원봉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작은 배려가 장애인에 희망”

포항시지회,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 직원들이 지난 7월 23일(금) 포항북부해수욕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협회 포항시지회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지회장 이용성, 이하 포항시지회)는 지난 7월 23일(금) 포항북부해수욕장에서 지역사회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사는 환경의 조성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포항시지회와 포항시장재인종합복지관, 경북 지적장애인복지협회 포항지부,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 구미시지회가 함께 홍보물

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맞아 북부해수욕장을 찾은 많은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거리캠페인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포항시지회 이용성 지회장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식을 우선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이동권, 보행권, 접근권이 왜 필요한지를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관 6주년 기념식’ 개최

“초심의 마음으로 장애인이용자를 섬길 터”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의정부 지역 장애인복지증진의 첨병,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송용성, 이하 의정부복지관)의 ‘개관 6주년 기념식’이 지난 7월 22일(목) 이용고객, 지역주민 및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열렸다.

기념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실시됐는데, 먼저 ‘1부 기념식’은 송용성 의정부복지관장의 기념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격려사, 강성종 국회의원, 노영일 시의장, 복지관 동호회장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에 참석한 모든 내빈들은 의정부복지관의 개관 6주년을 축하하며 “의정부 지역의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1부에 이어 진행된 ‘2부 축하공연’에서는 귀엽고 앙증맞은 목소리로 아름다운 민요가락을 들려준 ‘오동초등학교 민요부’의 축하공연과 복지관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 4명과 봉사자 2명으로 구성된 ‘일밴(일회용밴드 줄임말)’의 공연이 실시됐다.

특히 일밴의 구성원인 공익근무요원들은 복지관에서 재가장

애인 목욕 및 반찬서비스, 체력단련실 이용고객 도우미, 기타 시설관리 등 이용고객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밴드공연 연습을 준비해왔고 이날의 깜짝 공연으로 이용고객을 즐겁게 해주었다.

또한 복지관 1층 로비에서는 복지관 뜨개방 동호회원들의 예쁜 뜨개 작품이 전시되었고, 여성장애인들로 구성된 모아공방에서 만든 다양하고 예쁜 천연비누도 같이 전시하여 이용고객 및 내빈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복지관 여성장애인사업 ‘빛나는Nail(내일)’팀은 이용고객들에게 예쁜 네일아트를 무료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송용성 관장이 복지관 ‘개관 6주년 기념식’ 장기자랑대회에서 수상한 이용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 제공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이자 하이라이트는 이용고객 및 지역주민이 그동안 남몰래 숨겨왔던 끼와 재능을 발휘했던 장기자랑대회였다. 대회의 모든 참가자들은 그동안 숨겨두었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번 행사는 의정부시에서 장애인 복지의 등대가 되고자 출발했던 의정부복지관의 지난 6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곳곳하게 지역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기 위한 초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는 자리가 되었다.



‘신나고 캠프’에 참가한 장애·비장애 아동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애아동형제캠프 ‘신나고 캠프’를 실시

김천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김천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 이하 김천복지관)은 지난 달 22일(목)부터 23일(금)까지 양일간 장애아동을 위한 ‘신나고 캠프’를 김천옛날숨씨마을(증산면 소재)에서 실시했다.

장애아동 및 가족, 인솔교사, 자원봉사자 등 총 24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장애

인 가정 내 장애 및 비장애 형제의 사회·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형제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캠프에서는 물놀이와 레크레이션, 송편 만들기, 목공예를 이용한 목걸이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형제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뜻 깊은 시간이 마련되었다.

국제라이온스클럽, 수동휠체어 9대 기증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국제라이온스클럽 356-E(경북)지구의 3개 클럽(영천, 영천조양, 영천보현)은 지난 7월 28일(수)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제근, 이하 영천복지관)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전달해 달라며 수동휠체어 9대를 기증했다.

휠체어를 기증받은 영천복지

관 이제근 관장은 “라이온스클럽의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하며 “휠체어가 꼭 필요한 지역 내 장애인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제라이온스클럽 356-E(경북)지구의 영천 3개 클럽은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라이온스클럽 356-E(경북)지구 회원들이 지난 7월 28일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수동휠체어를 기증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학금 지원, 결식 아동 돕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는 자원봉사의 씨앗!

‘2010 청소년 자원봉사캠프’ 실시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북부장북)은 지난 8월 13일(금)부터 14일

(토)까지 양일간 ‘2010 청소년 자원봉사캠프’를 실시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김종성)의 후원으



‘2010 청소년 자원봉사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중증재가장애인들의 가정에 전달할 여름철 먹을거리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 마련된 이번 캠프에서는 자원봉사단체 소속의 전문강사를 통한 ‘자원봉사 기초교육’과 장애인 편의시설 창작을 위한 ‘장애 유형별 편리한 집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들이 실시됐다.

특히 중증재가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옥수수·감자 등의 여름철 먹을거리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향후 자원봉사에 자

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됐다.

한편 이날의 행사를 후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현재 국가유공자의 재활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 북부장북과 사회공헌협약을 맺고 ‘보훈엔젤스’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및 후원을 실시해오고 있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15호 2010년 8월 15일

회 장 · 발행인 / 김정록 편집장 / 이현일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서울라05825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hambaknun30@nate.com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복지부, 7월 30일 ‘장애인연금’ 첫 지급

대상자 23만3천명…종전 수당수급자 21만 7천명, 신규 1만 6천명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30일 중증장애인 23만 3천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첫 지급했다.
◎보건복지부 국가복지정보포털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지난 7월 30일(금) 주소지 시·군·구에서 중증장애인 23만 3천명에게 일제히 ‘장애인연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은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21만 7천명과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한 사람 중 자산 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1만 6천명이다.

복지부가 지난 달 30일(금)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 달 28일(수)까지 총 8만1천명으로 자산

조사를 완료한 사람은 4만 7천명이고 나머지 3만 4천명은 금융재산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산 조사가 이루어진 4만 7천명 중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3만2천명이고 탈락한 사람은 1만5천명이다.

자산 기준을 충족한 3만 2천명 중 장애등급 심사를 완료한 사람은 1만8천명(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4천명 포함)이고 나머지 1만 4천명은 장애등급 심사가 진행 중(5천명)이거나 병원에서 장애 진단(9천명)을 받고 있다.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 대상자(종전 장애수당 수급자가 아닌 자)로 선정된 사람 1만 6천명은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장애등급 심사 적합자 1만2천명과 면제자 4천명)이고, 자산 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수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오는 8월 20일에 7월부터 소급해 지

급받게 된다.

이번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 하거나 장애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결과는 이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한 달(신청이 이루어진 달)부터 소급해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8월1일 신청하고 9월10일에 수급 대상

자로 선정된 경우, 9월20일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되 8월분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상자로 선정되어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재심사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일찍 그리고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 서류는 자산 조사 통과자에 한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하여 제출받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제도 시행 준비 관계로 7월에는 30일에 장애인연금을 지급했지만, 8월부터는 매월 20일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 ◆ (연령) 만 18세 이상
- ◆ (소득·재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월 평균 소득액과 재산을 연리 5%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
 -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자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자 월 80만원
- ◆ (장애등급) 장애 1급, 2급, 3급 중복

신임 복지부 장관 ‘진수희’ 내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신임 장관으로 한나라당 재선의 진수희 의원이 내정됐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하고, 지난 1995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지난 2004년 17대 비례대표로 첫 국회의원 뺑지를 달은 뒤,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성동갑에 출마해 당시 민주당 친노 386의 한 주자였던 최재천 의원(17대)을 꺾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17대와 18대를 거치며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원

내 공보부대표, 여의도연구소장 등을 맡은 등 당내 정책통으로 주목을 받았다.

정치적으로 진수희 장관 내정자는 친이계의 핵심이자, 현 여권의 실세인 이재오(특임장관 내정자)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사회학 박사라는 점에서 보듯 진 내정자는 평소 여성복지, 보육, 보건 의료, 저출산 해소 등에 다양한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여의도연구소를 이끌며 보건복지 분야의 보육, 복지 정책은 물론 그동안 의정활동에서도 정책통으로 꼽히는 점 등을 인정받아 복지부 장관으로 입각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약 력〉

- 1995년 대전출생
-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 미국 일리노이대 사회학 박사
- 17·18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원내공보부대표
-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 한나라당 17대 대선 예비후보 이명박 대선 경선후보 대변인
- 17대 대통령직인수위 정부분과위 간사
- 육아선진화포럼 회장

〈기자회견 전문〉

Q)소감은?

A)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대상은 서민과 소외계층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다. 이런 시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데 대해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Q)발탁 이유는?

A)현재 친(親)서민, 소통, 현장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같이 일을 해 온 만큼 정치·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선택하신 것 같다.

Q)현재 보건복지 분야의 최대 현안?

A)우선 양극화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결국 양극화 문제로 서민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동시에 저출산 해소를 위한 보육 문제에도 집중해야 한다.

Q)향후 복지정책 우선순위?

A)경기지표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운 서민층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육아 및 일자리, 사회보험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Q)서민정책이 탁상행정인 데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A)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각종 정책을 입안·집행하겠다. 또한 생각이 다른 분들의 의견도 부족함 없이 수용하는 섬김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다.

(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수장으로 내정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이낙연 의원 “2011년 예산안 장애인 외면”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보조기구 지원 예산 삭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349억원 증액에 그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예산요구안(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을 들고 기획재정부의 협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지난 7월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예산은 9억원으로 전년보다 10% 삭감 편성됐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을 1,386명에서 1,100명으로 286명 축소해야하는 실정이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도 2억 7,400만원 줄어 지원대상이 2,625명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장애인계에서 대폭적인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서

비스는 1,696억 8,100만원으로 전년보다 349억 1,100만원 증액하는데 그쳐 올해도 장애인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범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정식 도입될 것으로 기대됐던 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예산은 3,555억 3,3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2010년 하반기 6개월 예산인 1,519억 1,900만원의 두배 가량인데, 장애인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상자 확대를 실현할 수 없는 예산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쌀을 공급하기 위한 양곡할인 예산은

1,108억원에서 111억원으로 10% 삭감된 997억원으로 편성돼 25만포가 줄어든 전망이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예산도 올해 657억원에서 150억원 삭감된 507억원으로 편성돼 2만6천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외에도 보호자 없는 병원 관련한 예산은 올해 24억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아 사업 중단이 예상된다.

이낙연 의원은 “정부가 서민정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만 해놓고 실제로는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복지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심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
©이낙연 의원실

헌재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합헌”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9일 (목)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권’을 허용한 의료법 ‘82조 1항’과 ‘88조’가 재판관 6(기각)대 3(위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시각장애가 안마업무의 필수요건도 아니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 안마사로 등록된 이는 소수인 점 등에 비춰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수기마사지사협 등 11개 단체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

격을 취득할 수 있고, 안마사 자격인증 없이 안마행위를 한 자들을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의료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강창일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장애인차별 개선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16일(금)자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날 이후 1주간동안을 ‘장애인 차별 철폐’주간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차별 개선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인 ‘장애인차별개선지수’를 개발하고 조사, 작성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2008년 12월 기준으로 총인구 가운데 등록장애인의 비율이 4.5%를 차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



장애인차별 개선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 공식홈페이지

조되고 있다”며 “그러나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41.1%에 불과하여 전체인구 경제활동참여율인 61.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비장애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의 53.4%에 불과하다”고 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에이블뉴스〉

경북경찰, 처제·장애인 성폭행범 2명 영장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1·무직·전북 익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학업을 위해 자신의 집에 와 생활하던 사촌처제 A(피해당시 10)양을 3년여에 걸쳐 3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과 처제가 둘만 있는 틈을 타 첫 범행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잠을 자는 시간 등을 골라 집안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하거나 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성폭행을 견디지 못한 A양이 아버지가 사는 경북 구미로 주거지를 옮겨 아버지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하는 바람에 꼬리가 잡혔다.

김씨는 지체장애인인 A양

의 아버지가 이혼한 뒤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되는 것을 알고 “대신 키우며 공부를 시켜주겠다”며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지난 5월 자신이 일하는 공사현장 주변에 사는 정신지체 장애인 2급 여중생(15)을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뒤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56·노동)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애인장기요양제 시범사업’ 결과 살펴보니

장애등급 1급만 대상 논란...“활동보조에서 이름만 바뀔라”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가 시범사업을 거쳐 확정해 국회에 보고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 모형의 큰 틀은 기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일부 급여를 추가한 모형이다.

이는 그간 장애인계가 ‘요양’으로의 설계를 거부하고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대상자 확대나 자부담 등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름만 바뀐 제도로 그 의미가 퇴색될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6개 시군구 53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시범사업은 5개 지역에 기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급여를 추가한 ‘장

애인활동보조사업 확대모형’이, 나머지 1개 지역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그대로 장애인에 적용한 모형으로 진행됐다.

시범사업 실시결과에 따르면 활동보조사업 확대모형을 적용한 지역에서는 이용자의 98.5%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했고,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률은 1.5%에 그쳤다.

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로 복지부는 홍보부족과 활동보조서비스에 비해 비싼 수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 어려움, 활동보조 급여 내에서도 목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 향후 제도도입 시에는 문제점을 개선해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평가단(단장 조흥식)은 장애인이 노인과는 달리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사회보험방식 적용의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제도모형을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명칭과 관련해서는 ‘요양’이 아닌 ‘자립과 사회참여’ 서비스를 내포할 수 있는 ‘장애인자립생활보조서비스’, ‘지역사회생활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대안으로 제시돼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행 장애인활동



장애인계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이름만 바뀐 채 도입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보조서비스와 동일하게 등록 장애인 1급 중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험료 부과에 대한 낮은 사회적 수용도를 고려해 조세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급여범위에 주간보호, 장애아동을 위한 상담교육 등 가족지원 서비스, 재활서비스 등을 추가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올 11월부터 5개월간 서울 서초, 대구 달서구, 부산 해운대, 광주 남구, 전북 익산, 경기 평택, 제주도 서귀포에서 급여범위를 확대해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실질적인 제도 도입은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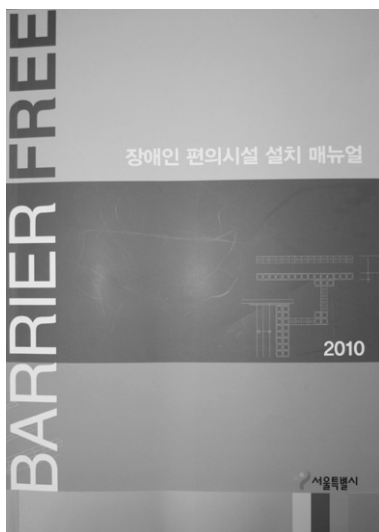
〈출처 - 에이블뉴스〉

서울시, ‘2010 장애인편의시설매뉴얼’ 발간

서울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최근에 개정 또는 제정된 법률과 제도, 지침 등을 반영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새롭게 발간했다.

시는 2002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발간했으며, 지난 2006년에 1차 개정한 이래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새로 개정된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서 정한 설치기준들을 사진과 삽화 등 시각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시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많았



서울시가 새로운 법률 제도를 반영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새롭게 발간했다.

음에도 기존 건축물 편 매뉴얼에 일부 포함돼 있던 공동주택 관련 사항은 ‘공동주택 관련 분야’로 따로 분리했으며, 지금까지 편의시설 매뉴얼을 직접 적용해 운영해 본 결과 모범이 되고 있는 사례를 매뉴얼에 담았다.

매뉴얼은 시·자치구 등 행정기관뿐 아니라 편의시설지원센터나 건축설계사무소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장애인종합홈페이지(<http://friend.seoul.go.kr>)에도 게시하여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유일의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에는 서울형 무장애시설 인증제의 인증 지표들을 추가 반영해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아동 청소년 목욕의자 등 보조기기 지원

서울, 경기, 인천지역 180명 지원...23일까지 접수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현대기아차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장애아동 청소년 목욕의자 및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펼친다.

지원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3~16세(1995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아동청소년으로 목욕이나 이동시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총 180명을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23일까지 지원자 접수를 받는다.

보조기기는 목욕 시 배수가 용이하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목욕의자와 자세유지가 가능한 가슴 및 골반벨트가 장착된 유모차형 이동 보조기기다.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지원신청서 1부와 사진자료 3~4장, 장애인등록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다.

사진자료는 목욕의자 신청자는 욕실 전경, 현재 목욕방법 등을,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신청자는 현재 이동방법, 보유 중인 이동수단 사용 모습 등이 담긴 것이어야 한다.

단, 최근 2년 내 유사한 기능의 보조기기를 공공이나 민간 지원받은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상자 선정시 연령별로 고르게 분배될 예정이다.

접수는 우편(우: 445-360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379-10번지 병점프라자)이나 이메일(happy@atrac.or.kr)로 하면 되고 선정결과는 수행기관 내외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중순께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서 내려받기와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센터 홈페이지(www.atrac.or.kr) 게시판 센터소식에서 가능하다.

*문의 전화 : 070-7116-6571 황민영 팀장

“공무원 급여 95% 수준으로 인상 검토”

오세훈시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터놓고 대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공무원 임금의 9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22일(목) 오후 동대문종합복지관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0여명과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서울’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오 시장은 이날에 앞서 서울시의 청년, 학부모와 ‘서울시장과의 현장대화’를 가진 바 있다.

이날 대화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 복지 정책에 대한 지원 요구 등이 쏟아졌고, 오 시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10년 경력의 한 남성 사회복지사는 “복지사업분야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부족한 것 같다”며 “사회복지사가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여성 사회복지사는 “노

인 돌봄 서비스 같은 서울시 핵심 추진사업 담당자의 인건비가 60만원에 불과하다”며 “여건이 좋지 않으니 이직률도 높는데 정규직으로 바뀌줘야 한다”고 요청했고, 또 다른 사회복지사는 “상당수 복지관이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데 때때로 선거를 치르고 나면 정치적 논리로 위탁법인이 바뀌는 경우를 봤다”며 “법인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22일 오후 서울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5명과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4년간 복지 예산이 2배가 늘었는데도 아직도 가슴 아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공감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최근 몇 년간 임

금이 동결돼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안다.”며 “3~4년내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공무원 임금의 95%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고, 믿어도 좋다”고 약속했다.

인천 연수구,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시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실내 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수구는 저소득 장애인 36세대를 선정해 ‘연수지역 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에 위탁해 지난달부터 주택 개조공사에 들어갔다.

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인 등록 장애인 중 수유·실태 조사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된 가구에는 집안 내 외 개보수 등의 소규모 수선과 싱크대, 도배, 장판 등의 물품 교체를 비롯해 기본 경사로, 싱크대 높이조

절,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정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및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 세계장애인사격선수권 종합 1위



‘2010 세계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 박세균(청주시청) 선수의 ‘P1 공기권총(남자)’ 시상식 모습.

‘2010 세계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 장애인사격 선수단이 막판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종합순위 ‘1위’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대회 ‘2010 세계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의 마지막 날인 7월 25일(일, 한국 시각) 혼성 공기소총 복사 SH2 종목에 출전한 한국은 이지석(경기일반), 류호경(청주시청), 강주영(강원일반)이 합계 1천798점을 쏴 2위 호주를 1점 차이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이로써 대회 막바지에 금메달 1개를 추가하며 합계 금메달 8개, 은메달 8개, 동메달 3개로 종합순위 1위의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대회에는 ‘2008년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의 선전이 특히 눈부셨다.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의 금메달리스트인 박세균(청주시청)은 P4 50m 권총 개인·단체전과 남자 P1 공기권총 개인전 금메달로 대회 3관왕의 영예를 안았고 역시 베이징에서 금메달을 땀던 이윤리(전 남일반)도 여자 R2 공기소총 개인·단체 우승을 휩쓸었다.

특히 혼성 R3 공기소총 복사 2관왕인 장성원(청주시청)은 개인전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한국에 이어서는 중국이 금메달 6개,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로 2위에 올랐고 러시아와 스웨덴이 각각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씩을 따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며 이번 대회에는 한국 선수단 21명(선수 15명)을 비롯해 모두 43개국에서 246명이 참가했다.

한편 한국 선수단은 지난 7월 26일(월) 오전 11시35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살아있는 파브르곤충 체험전’ 무료 초청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단체 회원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가 7월 24일(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숲에서 열리는 ‘살아있는 파브르곤충 체험전’에 소외계층 단체 회원들을 ‘무료 초청’한다.

(주)SIM 엔터테인먼트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저소득자나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의 소외계층 단체 회원들을 대상(무료 초청)으로 실시된다.

무료 체험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홈페이지(www.maposw.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팩스(02-3273-2254)나 이메일(mapocsw@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오는 10월 말까지 수시로 접수할 수 있으며 개인별 신청은 불가하다.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 복지지원팀 박진영 대리는 “이번 곤

충 체험전은 직접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연 학습의 즐거운 기회”라며 “문화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많이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살아있는 파브르곤충 체험전’은 책 ‘파브르곤충기’를 테마로 살아있는 전시공간으로 재구성한 전시회다. 서울숲공원의 가족마당에 마련된 총 2천㎡ 규모의 가설 전시장 2곳에 각각 ‘파브르가 발견한 재미있는 곤충 이야기’와 ‘파브르도 몰랐던 재미있는 곤충 이야기’라는 주제로 꾸며졌다.

‘파브르가 발견한 재미있는 곤충 이야기’에서는 쇠똥구리, 매미, 공작나방, 딱정벌레, 사마귀, 전갈, 각종 벌의 생태를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다. ‘파브르도 몰랐던 재미있는 곤충 이야기’에서는 물방개, 게아재비 등 수서곤충 10여종과 장수풍뎅이,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숲에서 열리는 ‘살아있는 파브르곤충 체험전’에 소외계층 단체 회원들을 무료 초청한다.

갑충, 나비 등이 전시된다. 또한 ‘파브르 곤충기’의 저자인 장 앙리 파브르의 일대기와 업적을 배울 수 있는 전시관을 비롯해 로봇곤충 씨름대회 등의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진다.

체험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반딧불이 관찰 행사가 열리는 8월에는 오후 10시까지 개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3273-2251)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에이블뉴스〉

2010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 개 요

- 행사명 : 2010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 일 정 : 2010. 10. 18(월) ~ 10. 19(화)
- 장 소 : 올림픽파크텔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인 원 : 200여명
 - 중증장애인 부부 : 전국의 장애인 및 그 배우자 100명(50쌍)
 - 격려를 위한 참석자 : 지역장애인 대표자 (25명)
대회임원 및 초청내빈 (50명)
자원봉사자 및 기타 관계자 (25명)

▶ 대회초청대상자 선정방법

- 배우자의 1~2급인 장애인 부부(부부 중 한명이상 이 중증장애인)로서,
 1. 결혼생활이 만 3년이상 경과한 장애인 부부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추천인의 추천을 받은 자
 - 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추천을 받은 자
 - ②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도협회장 및 232개 시·군·구 지회장(시설장)
 - ③ 전국 16개 시·도지사 및 232개 시·군·구청장
(해당 시·군·구청 복지관련 담당 공무원도 추천 가능)
 - ④ 장애인단체 및 각급 시민·사회단체의 장
 - ⑤ 기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인사 등

▶ 제출서류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참가신청서(소정양식, 산하 시·도협회 비치) 1부
- 수기(200자 원고지 40매 또는 A4용지 4~5매, 글자크기 12포인트, 글자체: 굴림, 줄간격 160%로 작성)
[반드시 협회에서는 생활수기 원고를 PC입력 후 이메일(kyunghwamok@naver.com) 전송 요망]
-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부부가 같이 촬영한 사진 1매

▶ 제출방법

- 본인 또는 추천인이 중앙회에 제출(중증배우자대회 담당팀)
(수기원고를 PC입력 후 이메일(kyunghwamok@naver.com) 전송)
- 직접 제출 및 우편 제출

▶ 제출기간

- 2010년 8월 16일(월) ~ 9월 10일(금) 까지
(단, 생활수기는 반드시 배우자가 작성해야 함)

▶ 제출처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중증배우자대회 담당팀)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번지 이룸센터 301호
- 문의 (02 - 2289 - 4332)

▶ 종류 · 대상 및 시상내역(예정)

표창종류	대 상 기 준	인원	비 고
장한 배우자상	전체대상 - 가장 훌륭한 배우자	1	상장 및 상금
아름다운 배우자상	미담사례부문 우수 배우자	4	“
자 립 상	성공사례부문 우수 배우자	1	“
가 화 상	자녀교육에 힘쓴 배우자	1	“
특 별 상	미디어부문에 홍보된 배우자	1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0년 하반기 주요 추진사업'

용맹한 백호(白虎)의 기운으로 출발한 2010년 경인년(庚寅年)이 어느덧 절반이 지났다. 지난 반년 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은 '메니페스토 발대식', '칠레 지진피해 성금 전달식', '제19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등의 주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최근 장애계 최대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공단(양경자) 사태'의 해결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으며, 2010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본지는 올해 하반기의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게 될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2010년 하반기 주요 추진사업'을 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8월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 9월 2010 장애인문화예술 국민대축제 참여 (학술심포지엄, 스타장예(藝)인 콘테스트) 2010년 전국장애인 자립작업장 경영자 연수
- 10월 2010년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장애인 맞선이벤트 '솔로탈출 119'
- 11월 제10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 12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전문가 워크숍

● 8월,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및 전국 16개 시·도 편의센터 요원들이「장차법 대응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적정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센터장 김정록, 이하 편의센터)는 2010년 8월부터 「장차법 대응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적정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07년 4월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따

른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준'이 연차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내년 2011년 4월 11일부터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해 장차법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준'이 의무화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사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주최하고 편의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편의센터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편의시설이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이 증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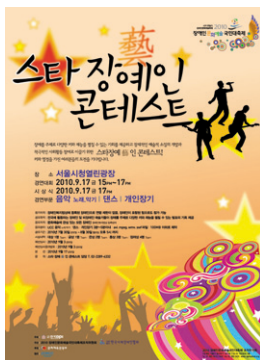
● 9월, '2010 장애인문화예술국민대축제' 참가 『전국장애인자립작업장 경영자연수』 실시

- '학술심포지엄' 및 '스타장예(藝)인 콘테스트' 개최

지장협은 오는 9월 15일(수)부터 20일(월)까지 서울시청광장 등에서 열리는 「2010 장애인문화예술국민대축제」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스타장예(藝)인 콘테스트'와 전문 학술세미나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학술심포지엄'을 주관한다.

오는 9월 16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인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장애인단체관계자 및 일반시민 150여명이 참가해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치게 될 것이다.

이어 9월 17일(금) 개최될 예정인 '스타장예(藝)인 콘테스트'를 통해 장애인들이 음악(노래, 악기), 댄스를 비롯한 자신의 장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9월 17일(금) 개최될 예정인 '스타장예(藝)인 콘테스트' 홍보 포스터

특히 '스타장예(藝)인 콘테스트'는 하이라이트로 알려지며 많은 장애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 전국장애인자립작업장 경영자연수

지장협 산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립작업장 포함) 경영자 및 전담요원들을 대상으로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경영효율화방안은 물론, 장애인고용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2010 전국장애인자립작업장 경영자연수」 교육을 오는 9월 30일(목)부터 10월 1일(금)까지 이틀간 대전에



지난 2009년 열린 '전국장애인자립작업장 경영자연수' 모습

위치한 레전드호텔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 10월, 「2010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장애인맞선이벤트 '솔로탈출 119' 개최

- 2010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지난 2009년 10월에 개최된 「2009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김정록 중앙회장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속에서도 소중한 사랑을 지켜온 중증장애인배우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건네고 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무관심으로 살아 가는 장애인배우자에 대한 고귀한 생활정신을 일반국민의 귀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전국의 모범장애인 배우자를 초청, 그들의 생활의욕을 고취시키

고, 정부로부터는 장애인 가정에 대한 복지 시책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10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를 10월 18일(월)부터 19일(화)까지 이틀 간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개최한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실시된 이번 대회와 첫째 날에는 개회식 및 모범배우자 시상식을 하는 '만남의 한마당', 초청 강사의 강연을 듣는 '명사초청강연'과 만찬 및 연예인의 기념공연이 펼쳐진 '나눔의 한마당' (화:18:00~19:00)이 실시되며, 둘째 날에는 청와대사랑채 및 국립중앙박물관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솔로탈출 119



성년 장애인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솔로탈출 119'가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지난 2009년 10월 열린 '솔로탈출 119' 행사 모습

장애인의 결혼문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장애로 인한 '이동' 또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으로 인해 남·여 간의 교류가 쉽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보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성년 장애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지장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솔로탈출 119'를 오는 10월 30일(토) 개최할 예정이다. 성년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결혼 지원 프로그램인 '솔로탈출 119'를 통해 장애인의 결혼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장애인 삶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1월, 『제10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행사 모습

11월 11일은 흔히 '빼빼로데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날은 일 년 중 숫자 '1'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날로서 지체장애인들이 세상을 당당하고 힘차게 일어설 것임을 선포한 '지체장애인의 날'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장협은 오는 11월 11일 2010년의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제10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자립과 재활의 실천의지를 다져온 전국의 지체장애인들이 위로·격려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기 진작 및 자긍심을 함양하고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지체장애인들의 단결과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대회를 통해 자신의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체장애인과 복지발전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 화합상, 자립상 및 지도자상을 수여하고, 그동안 지역장애인을 위해 봉사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한 지역을 최우수협회(지회) 및 우수협회(지회)로 표창하여 격려할 예정이다.

※ '지체장애인의 날' 의미

첫째, '86년 11월 11일'은 국내최대의 장애인단체이자 대표적 단체인 지장협의 창립을 위한 첫 발기인 모임이 개최된 날이다.

둘째, 11월 11일은 「1」이라는 숫자가 1년 중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날이다. 「1」은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로서, 지체장애인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힘찬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셋째, 「1」의 형상은 직립(直立)을 뜻하고 있는 바, 신체적 장애로 제 각각의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똑바로 당당하게 세상을 활보하고픈 지체장애인들의 욕구를 표현하고, 굳은 정신을 지향하여 힘차게 일어선다는 의미이다.

네 번째, 「1」은 첫째, First를 의미하는 바, 스스로를 제일(第一)의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동시에 가족과 이웃, 나아가 사회전체를 제일의 소중한 가치로 여김으로써 진정한 복지사회를 염원하는 지체장애인들의 열망을 담고 있다.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센터장 김정록, 이하 편의센터)는 2010년 하반기에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열심히 매진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및 기술적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 및 매뉴얼 개발, 건축허가기관에 대한 건축협의 시 편의시설 설치관련 설계도 확인의 업무지원,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과 각종 교육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1~12월 중 전국의 센터요원이 참가하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전문가 워크숍'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직원들이 지난 5월 '제19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의 장애인관람객들을 위해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다

●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 운영

급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장애인 생활전반에 걸친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리 및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 직업재활사업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및 취업 알선·사후관리 등 취업지원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직업재활사업'을 연중 진행한다.

초기면접, 직업상담, 관계기관 연계체계 수립, 취업알선, 구인업체 개발 및 사후지도 등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스스로 자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간행물 발행, 월간『새보람』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련 정책 및 다양한 이슈별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장애인의 인식개선과 사회참여 유도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신문 '새보람'을 매월 발행할 예정이다.



월간 새보람

중앙행정기관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보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센터장 김정록, 이하 편의센터)에서는 지난 7월 20일(화)부터 8월 12일(목)까지 총 11일간 ‘중앙행정기관의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마친 후 가장 아쉬웠었던 것은 ‘편의시설 설치의 미비’보다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 또는 편의시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었다. 그 일례로, 장애인을 단지 ‘민원인’으로만 여기고 있으며, 그들은 장애인이 오면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것보다 인적서비스를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또는 향후 장애인이 자신의 동료가 되어 함께 근무하고 있거나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중앙행정기관의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 서문(序文)

지난 2008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가 종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각 대상시설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공시설은 말할 것도 없이 민간시설에까지 편의증진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말이다. 2008년 전수조사는 이를 통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편의증진 관련 정책입안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여 실시한 것이며, 2008년도에 실시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는 1998년, 2003년에 이은 제3차 조사였다.

그 결과 2008년 전수조사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77.5%로 2003년 전수조사의 설치율 72.3%와 비교하여 5.2%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 결과는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수립에 반영되어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정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적정설치율 향상을 위한 계획을 일련의 기간별로 작성하고 실천하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별 행정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와 함께 정비대상시설을 포함한 정부관련 공공시설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취해 적극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2010년 4월에 제101차 국정과제 전략협의회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와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하여 미설치되거나 부적설치된 편의시설을 6월말까지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하여는 각 지역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과 사전 협의 및 조사 후 ‘행복 e음’에 입력토록 기 조치(‘10.6.21)하였으며, 이에 조사된 설치율이 기존 입력된 자료와 비교하여 현저히 증가한 지자체는 서면 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재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40개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청사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함)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설치현황 공개 전 각 부처 및 지방행정기관의 편의시설 추가 설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결과에 대한 이견 방지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와 중앙센터는 7월 20일부터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실측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측조사한 결과는 의외였다. 이는 실제 건축물에 설치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인식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가왔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중앙센터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일정과 함께 설치현황과 담당자의 편의시설 및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을 일부 소개하여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아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초기 일부조사결과만 개괄적으로 신고 실태조사가 완료 되는 9월호에 전체 보고서를 게재할 예정이다. 그리고 본 조사결과는 8월 이후에 지자체 ‘행복 e음’에 결과가 입력되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 조사일정

조사는 2010년 7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11일에 걸쳐 실시했다. 그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은 40개 기관이며 해당기관이 입주해 있는 청사건물수는 22개 청사이다. 이 가운데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기관이다.

■ 설치현황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5〉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기관별 또는 청사별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 위주로 그리고 조사일정순대로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날은 7개 중앙행정기관(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농림수산업식품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환경부)이 5개동에 모여있는 정부과천청사를 조사하였다. 정부과천청사는 1982년경에 건축된 세종로 중앙정부청사에 이어 정부제2종합청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과천청사의 경우에는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를 위하여 경사로를 5동 모두 후문 출입구인 부출입구에 설치하고 있어서 정문으로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돌아서 건물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입식안내표지판〈사진 1〉은 규격품이 아니었으며 기재해야 하는 문구도 법적 기준과 달랐으며 바닥표지의 접근성표지 또한 국적 불문의 괴이한 형태〈사진 2〉 그리고 방향성 측면에서도 잘못 표시되어 있었다.

또한 정문 출입구로 유도된 점자블록이 있는 출입문은 모두 보안문제라 하여 폐쇄〈사진 3〉하고 있었으며 유도되지 않은 그 반대측 문을 개방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대부분 민원인이 찾아와서 대기하는 층인 1층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으로 비장애인은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도 보였다〈사진 4〉. 이는 아직도 장애인을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같은 직장동료라는 인식 등 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우리사회의 의식적 장벽의 일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천정부청사에서든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자랑할 만 것이 있다.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다고 한다. 후생동 국제회의실의 무대에 기존에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계단밖에 없었는데 지난 2005년경 중앙센터의 기술자문으로 좁은 무대 앞쪽으로 경사로를 설치하여 행사가 많은 국제회의장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쉽게 무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였다.〈사진 5〉

둘째 날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검찰청을 조사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에는 서울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마저도 오는 10월에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사계획



〈사진 6〉



〈사진 7〉



〈사진 8〉



〈사진 9〉



〈사진 10〉



〈사진 11〉

이 있어 조사를 진행하다가 시정에 대한 의미가 없어 조사를 중단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조사를 최종 중단하였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서울조달청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 건물주와의 편의시설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적정설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웠다.

둘째 날 마지막으로 대검찰청에 대한 편의시설을 조사하였다.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 동선을 양분화 해 두었다. 초기에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정문에서 직진하여 지하1층 민원실로 가도록 동선이 잡혀 있었으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경사진 정문 좌측의 차로를 따라 올라가서 지상 1층으로 이동하도록 동선이 잡혀 있었다. 얼마 전 지하1층으로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해 두었다.

하지만, 지하 1층에서 지상층으로 가기 위해서는 올라왔던 경사로를 나와 정문 좌측 비탈진 길을 따라 올라가야만 했다. 그리고 장애인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지상 1층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출입문은 대검찰청의 위상 및 비교적 신축건물에 어울리지 않는 주름문을 설치하고 있었다〈사진 6〉. 그리고 접수대〈사진 7〉는 보이지 않고 비좁은 안쪽 통로에 책상과 의자 및 장애인접수대라는 풋말만 있었다. 거기에는 누구도 없었으며 이는 장애인을 은폐하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셋째 날은 여성가족부와 국세청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 조사가 진행되었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민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기존건물이며 임차건물이라고 하지만 현재 여성가족부에는 중증장애인이 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를 위하여 출구에 경사로〈사진 8〉를 설치해 두었지만 급경사라 이용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어디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물론 할려고 하였다는 의지는 보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변기는 일반 대변기間に 손잡이만 설치한 것이 전부였다〈사진 9〉. 임차건물로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의지가 그 어떤 기관에서보다 열정적이었다.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어떻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시행규칙상의 세부설치기준을 20번 이상을 정독했다고 한다. 칭찬해 마지 않는다. 비전문가로서 그렇게 열정을 보이기는 쉽지 않은데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나타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에 평상시 바리케이트로 막아두고 있어 주차를 하려면 누군가가 나와서 그 바리케이트를 치워주어야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사진 10〉. 물론 다른 대부분의 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입식안내표지판은 잘못된 규격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것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정 설치대수 계산을 독특하게 하고 있었다. 국세청의 총 부설주차대수는 216대이며, 종로구 주차장조례에 의한 설치비율 3%는 6.48대이며 소숫점은 반올림하여 7대를 설치하여야 하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6대뿐이었다. 그런데 담당자의 계산법은 독특했다. 6대 ÷ 216대

=2.778%로서 소숫점 이하를 반올림하면 3%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할말이 없었다. 그리고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언뜻보기에는 아주 잘 설치된 것처럼 보였다. 대변기의 등받이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공간도 법적 기준보다 꽤 넓은 편이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많이 낮이 익었다. 한줄로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가 주욱 이어져 있었다. 대변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전면접근과 측면접근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함에도 대변기 측면 75cm 정도의 측면접근을 위한 공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기 또는 대변기를 설치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었다.〈사진 11〉

■ 장애인 또는 편의시설에 대한 잘못된 인식

첫째, 인적서비스로 해결한다.

해당 기관의 담당자는 한결같이 장애인이 오면 사람이 나와서 모두 안내하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었다.

둘째, 장애인은 민원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장애인은 모두 해당 기관에 민원인으로만 방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셋째, 인식이 부족하다.

해당 기관의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춰 모두 적정설치되어 있다고 설명을 한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으며, 설령 편의증진법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이해를 하지 못했으며, 법령을 이해는 했으나 편의시설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그 설치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넷째, 편의시설 설치와 시공에 대하여 관리를 하지 않는다.

설치와 시공은 업체들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믿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다. 잘못된 것에 대하여 업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다섯째, 유지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전과 같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창고나 청소도구보관장소로 사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아마도 미리 조사가 사전에 공지되어 실시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불가한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하고 있음에도 관리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 마치며

전체적으로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이라는 의미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개념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시혜적, 은혜적으로 받는 것 즉, 단순한 배려차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등이 건축물 등으로 이동하고 접근하여 시설을 이용하고 하는 것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법적인 권리로서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도 한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한시라도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란다.

기사제공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중앙지원센터
홍현근 팀장



서울시, 저소득 가정 신생아에 '아리수' 지원



서울시가 신생아를 출산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아리수'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이정관)가 신생아를 출산한 저소득층에 '병물 아리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내 거주하는 '신생아 출산 기초생활수급세대'로 출산 후 100일까지 아리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출산모 본인이나 가족이 가까운 구청(사회복지과 또는 생활복지과), 주민자치센터, 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아리수정책과, 전화 3146-1201~1206)로 방문 및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매월 1회

100병씩 3회 택배로 배송된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이정관 본부장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산모 및 해맑은 신생아에게 아리수를 전달함으로써 이들 가정에 적은나마 나눔과 정성을 담아 보내고자 한다"고 사업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2009년 8월부터 신생아 출산 다문화 가정에게 아리수 공급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717세대에 18,000여병을 공급해왔으며, 향후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과 소외 이웃을 위한 각종 행사 등에도 아리수 공급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02)3146-1101〉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모바일웹 구축

경찰청은 스마트폰으로 실종된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검색하고 신고도 할 수 있도록 모바일웹을 만든다고 지난 1일(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실종아동센터(182센터) 홈페이지(www.182.go.kr)에서 신고·검색시스템을 운영하고 실종예방법 홍보 등을 해왔지만, 실종자 발견율과 국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자 모바일웹 제작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모바일웹을 신고와 검색, 전국보호시설 안내, 실종·범죄 예방법 안내, 182센터 소개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이르면 오는 16일(월)부터 스마트폰을 가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missingchild182'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실종 신고된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사진이나 인상착의를 올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2010 시니어&장애인 엑스포 개최

국내외 장애인 보조기기 발전 현황 점검

국내외 장애인 보조기기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보조공학 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2010 시니어&장애인 엑스포(Senior & People with Disabilities Expo: SENDEX)」가 오는 8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3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다.

우선 26~27일 이틀간 킨텍스 전시 3, 4홀에서 '2010 국제 보조기구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유럽보조공학발전협회(AAATE)의 앤 리사 살미넨(Anne-Liisa Salminen)이 유럽의 보조공학

발전과정을 주제로 강연하고, 미국 워싱턴 대학 존슨 교수가 미국의 보조기기 관련 법률 제정 과정 및 시사점에 대해, ATAP 데보라 벅(Doborah Buck) 대표가 미국의 지역사회중심 보조공학센터 현황 및 적용방안에 대해, 오승길 경기도재활공학 연구지원센터장이 한국의 보조공학센터 현황 및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국내보조기기관련 법률 제정을 주제로 이승기 성신여대 교수, 오도영 이지무브 대표, 송성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대표, 이근민 대구대 교수, 김성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부장이 발표한다.

27~28일에는 '2010 자세유지 보조기구 한일 국제세미나'가 일본의 자세보조기기 제작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일본 키사쿠 공방의 히데아키 마즈에다 대표이사과 노리아키 니시카타 주임이 발표를 맡았다.

한편 엑스포에서는 국내외 143개 전문기업 및 단체의 총 3천여 종의 보조기구가 전시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은평장애인 취업박람회 31일 개최



'2010 은평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오는 8월 31일(화) 서울시 은평구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명숙)은 은평구청(구청장 김우영)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0 은평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오는 31일(화)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은평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은평구를 비롯한 서울, 경기 소재의 30여개 사업체와 지역 내 장애인 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장애인 구직자에게는 폭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장애인 인재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취직을 원하는 장애인들은 다양한 취업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각종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미지메이킹, 무료건강검진, 자립생활상담, 장애인생산물 체험 등의 다채로운 부대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행사 당일 이력서와 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행사 참여를 원하는 구인 사업체는 8월 초부터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02-351-3982)에 문의 후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행사 당일 3호선 녹번역(4번 출구) 앞에서 구청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배차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

경기도, "2011년, 공공도서관 장애인 채용 확대"

경기도(시장 김문수)는 도내 공공도서관 144곳에 장애인 사서보조원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7월 20일(화) 밝혔다.

경기도는 이미 올해 초부터 안양, 부천, 시흥 등 3개시에 있는 공공도서관 22곳의 사서보조원 22명과 우편분류원 2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마친 뒤 검토·보완을 통해 내년부터 31개시·군 전역의 공공도서관 144곳으로 장애인 사서보조원 채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복지일자리로 분류돼 20만원 정도인 월 급여를 행정도우미로 바꿔 85만5천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3.08%인 도청 내 장애인 고용률을 경

기도의 장애인 인구 비율인 4.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2.3%)을 지키는 민간기업에도 행정지원을 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에 힘을 쓸 계획이다.

경기도 노환호 장애인복지과장은 "복지일자리와 행정도우미로 시작한 장애인들의 업무처리 능력이 일정 정도 이상 발전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교통약자 콜센터’ 인기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피수원 장애인 콜택시’ 포스터.

경기도 수원시가 중증장애인 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

동지원 콜센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

7월 28일(수) 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난 7월 21일(수)까지 콜택시 이용횟수는 모두 1만7천494건으로 이중 휠체어 탑승설비가 갖춰진 장애인 콜택시 이용횟수는 전체의 41%인 7천179건에 달했다.

월별 운행횟수는 4월 3천723건, 5월 4천639건, 6월 5천164건으로 매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7월도 21일 현재까지 3천968건을 기록했다.

장안구 조원동 수원체육관에 마련된 콜센터는 운전자 15명과 상담원 5명이 배치돼 오전 6

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며 휠체어 탑승설비가 갖춰진 ‘해피수원 장애인 콜택시’ 12대와 일반택시(30대)로 구성됐다. 요금은 기본요금 1천원에 기본요금 초과 시 일반택시 요금의 40%로 저렴하다.

콜센터 관계자는 "해피수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고객이 매달 늘고 있고 이용객의 절반가량은 사전에 예약해 자가용처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문의: ☎031)253-5525〉

대전 중구, 장애인 주차표시 개선 조례개정

대전광역시 중구(구청장 박용갑, 이하 중구)는 지난 3일(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시를 주차 구획선 밖에도 설치하는 내용의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8월 12일(목)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차구획선 안에만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표시를 구획선 앞이나 옆면에도 기존 표시의 1/2크기로 설치, 차량을 주차했을 때도 표시가 보이도록 했다.

중구는 지난해 12월 열린 시책구상보고회에서 기획관리실 박영수 계장이 이 같은 아이디어를 내 올해 초부터 중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



주차구획선 밖에 표시된 장애인 전용주차표시.

장 27곳 51대의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표시를 추가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는 관내 민간주차장 95곳 350대의 장애인주차구역에도 추가 표시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현행 장애인 주차표시는 안에 있어 차가 세워져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다”면서 “장애인 전용주차제를 제대로 실시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창원시, 전국 첫 ‘장애인 복지타운’ 8월 준공

장애인 복지시설을 한곳에 묶은 국내 최초의 ‘장애인 복지타운’이 오는 8월 경남 창원에서 준공된다.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일대 6314㎡에 건립되는 장애인 복지타운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구성된다.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면적

2959㎡ 규모로 55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준공 이후 올해 50명, 2011년 100명, 2012년 50명의 장애인을 모집해 전자인쇄업과 세탁업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물론 취업활동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상 2층, 건축면적 534㎡로 5억3000여만원이 투입돼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창원시는 이 시설을 통해 장·단기 교육

과정에 걸쳐 정보통신(IT), 전자, 기계 등의 분야 교육을 받는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장애인 복지타운에는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및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공사도 추진 중이다.

〈문의: 창원시청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과 ☎055)225-3843〉

제주, 장애인 보조견 공공시설 출입 허용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시설 출입이 가능해지고 등록수수료가 감면된다.

제주도가 장애인 보조견에 한해 공공시설 출입을 허용하고, 등록 수수료도 감면해준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동물보호조례’를 마련해 지난 7월 28일(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에 한해 박물관이나 쇼핑몰, 목욕탕 등 공공시설 출입을 허용하고, 등록 수수료도 50% 감면해준다. 현재 반려견 등록수수료는 인 식용 목걸이 1만5천원, 마이크로칩 1만9천원이다.

등록한 동물이 분실 또는 폐사해 변경신고할 때 내야 했던 수수료(5천원) 조항도

삭제됐다.

또한 신규등록 및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물 출입금지지역에 동물을 동반한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도 종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렸다.

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8년 12월 31일 동물보호조례를, 2009년 5월 11일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5천여마리가 반려견으로 등록됐다.

제주도는 조례개정으로 동물 소유자들이 부담을 덜어 동물보호에 더 큰 관심을 둘 것으로 기대했다.

충남, ‘무임 교통카드제’ 도입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수도권 전철과 서울·인천지역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오는 8월 말부터 도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 서울·인천 지역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임 RF(Radio Frequency) 교통카드’를 발급하기로 하고 카드 발급기관인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수도권 전철 연장 운행지인 천안·아산시와 지난 7월 26일(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임 RF 교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에 무임승차 대상자임을 알리는 칩을 내장한 것으로, 이 카드를 사용하면 지

금과 같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할 때마다 매번 신분증을 제시하고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충청남도 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등 카드 발급 대상자는 7월 30일(금)부터 전국 신한은행 지점에서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천안·아산 지역의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카드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해야 한다.

충청남도도 관계자는 "무임 RF 교통카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42만8천여명에 이르는 도내 교통 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원상담 Q&A



-기사제공-

중앙회 이춘희 여성정책팀장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질문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장애인당사자분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민원상담실에 질문사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 : ☎02)2289-4320

“2급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Q) 제 어머니는 2급 장애인인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당뇨에 신장, 심장, 시력상태 등 몸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시고 현재 이들에 한번씩 혈액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혼자 생활하시기 너무 불편해 하지만 제가 다니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어서 곤란한 상황인데요, 제가 일 다니면서도 어머니를 돌봐줄 곳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지원이 가능한지와, 이런 혜택인 어머니 명의로 된 물건이나 집 보증금 등을 어머니 명의로 해야만 하는 지, 아니면 아들인 제 명의로 되어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은 명의가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핸드폰 요금, 집전화, 인터넷은 어머니 이름으로 된 것만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가구단위로 는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시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셔야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 등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그 곳에서 생활과 케어를 같이 받는 곳이며, 어머니가 65세 이상 이시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급~2급은 요양시설에 입

소할 수 있으며, 3급 판정이 나오면 가정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화장실 이용, 주변정리, 말벗, 간호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등급은 판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방문조사를 거친 후 결정 됩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 1577-1000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등록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과 소득, 부양의무자 조사를 거쳐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 생계비와 장애연금 등이 지급됩니다. 또한 요양시설의 비용 전액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 수급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02-796-4280)로 전화 주십시오.

“보험사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

Q) 저는 간질장애인(4급)입니다. 얼마 전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보험사도 저를 받아주지 않네요. 도대체 암과 간질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바로잡을 수 방법이 없을까요?

A) 장애인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원칙상 부당하게 거절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인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청약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신고 가능한 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생명보험협회 계약관리지원부

02-2262-6658 / www.klia.or.kr

2. 생명보험협회 보험업무부

02-730-6363 / www.knia.or.kr

3. 국가인권위원회 1331 /

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거 해당기관을 조사하며, 보험뿐만 아니라 장애 전반에 대한 차별에 대해 진정 접수 및 조사를 실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아파트”

Q) 2급 장애 판정을 받은 하지마비 환자입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병원에 있습니다. 집으로 가고 싶어도 좁고 이층계단이 높아 휠체어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친 이후로부터 집에 간적이 없습니다. 이젠 저도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가난한 장애인을 위한 아

파트는 없나요?

A) 각 지역마다 도시개발공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와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지역 주택 등을 공급하는 업무를 하는데,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라면 임대아파트에 입

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그 지역 거주기간, 장애등급, 세대원 수, 무주택 기간 등을 종합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받으며 여러 임대아파트 모집공고가 나면 평수와 지역, 임대료 등을 본인이 선택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개발공사 www.i-sh.co.kr로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1600-34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담당자
1	생산직	세진	중랑구 망우3동	30-50세	무관	가방제조생산보조	860,000	4대보험	2289-4321-2	한은희
2	경비직	국제안전시스템	노원,도봉,성북	67세이하	무관	아파트경비	1,050,000	4대보험	2289-4321-2	한은희
3	생산직	(주)씨피엘	안산 단원 화정	20-60세	무관	생산직	860,000	4대보험	2289-4321-2	한은희
4	기술캐드직	(주)아이팩 ENG	도봉구 번동4거리	35세이하	남	기술캐드	면접후	4대보험	2289-4321-2	한은희
5	경비직	(주)티지엠	의정부	67세이하	남	아파트경비	1,100,000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6	사무보조직	나라개발시스템	서울	30세이하	여	경리및사무보조	1,200,000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7	서비스직	나라개발시스템	서울	60대이하	남	소독원	1,400,000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8	택배직	종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서울	60세이하	무관	택배원	860,000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9	상품진열직	롯데마트 송파점	송파구	55세이하	무관	상품직열직	1,000,000내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사진작가 권영식의 '즐거운 다카세상'

사진의 백미 '파노라마 사진' 만들기

파노라마란?

‘파노라마(panorama)’의 사전적 뜻은 실내에서 구경하는 사람에게 야외의 넓은 실제 경치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은 1839년 다게르란 사람이 최초로 실용적인 은판 사진을 발명한 직후부터 파리 시가지를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이 제작되었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과 파노라마용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카메라로 파노라마 사진을 얻으려면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정교하게 수평 회전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셔터를 열고 닫으며 연속적으로 필름에 담는 방법이 있지만 기계가 크고 가격이 사용이 불편해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파노라마 전용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필름 전용에 파노라마 전용 포맷이기 때문에 역시 요즘에는 맞지 않는 촬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로 만드는 파노라마 사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준비

우선 파노라마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촬영 방법이 중요한데 파노라마를 촬영하기 위한 장소에서 눈으로 좌 우측의 경계를 설정한 다음 파인더에 눈을 대고 좌에서 우측으로 스윙을 해봅니다.

촬영할 프레임이 결정 되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노출과 초점이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노출 설정을 정확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각 프레임의 정확한 노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좌에서 우측으로 예비 스윙 할 때 파인더 안의 노출 정보를 잘 확인 하는 것 입니다. 프레임이 바뀌게 되면 노출이 변하게 되는데 노출 차가 크지 않다면 평균적인 노출을 매뉴얼로 세팅을 하고 초점 또한 한 곳에 고정 후 매뉴얼로 설정해서 촬영 시 초점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 합니다.

-촬영

좌측에서 우측까지 촬영을 하는데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180도 촬영을 한다면 15장에서 18장 정도 촬영 하게 됩니다. 이 숫자는 각 장면마다 1/3정도 화면이 겹치게 촬영 했을 때의 숫자 입니다. 더 많이 화면을 겹쳐서 촬영하게 되면 이미지의 숫자가 많아지고 반대의 경우라면 이미지 숫자는 작아지겠지요! 이미지가 많아지면 파노라마 제작 시 컴퓨터가 부담을 느끼며 이미지가 작으면 정교한 사진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몇 번의 테스트 촬영 후 본인에게 맞는 촬영 방법을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남산에서 서울 전경을 촬영한 10장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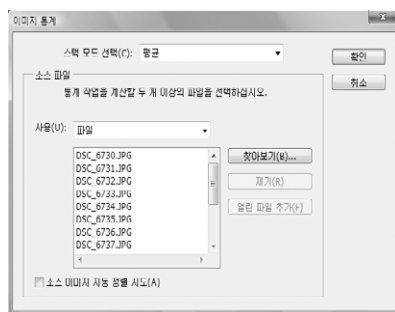
-파노라마 만들기

파노라마 촬영을 마쳤으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노라마 사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포토샵을 이용해서 화면의 겹친 부분에 한 장씩 이어 붙이는 방법이 있으나 매끄럽지 못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파노라마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노라마 전용 스티칭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나 요즘 출시되는 포토샵에서는 파노라마를 만드는 기능을 지원 합니다. 강좌는 포토샵CS3 한글판을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먼저 포토샵을 실행 합니다. 그리고 파일-스크립트-통계를 클릭 합니다.



클릭하면 소스를 불러올 박스가 열리는데 찾아 보기를 이용하여 파일이 있는 경로를 선택 합니다.



작업하기 전에 파노라마를 제작할 사진만 한 폴더에 저장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파일을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하면 포

토샵이 스스로 편집을 시작 합니다.

이때 파일의 숫자와 파일의 크기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필자의 경우 5메가바이트의 파일 10장을 작업 하는데 10여분의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따라서 웹용으로 이용할 용도라면 미리 파일 사이즈를 줄여 주는 것도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불완전한 모습으로 화면의 이미지들이 합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면마다 이어 붙여진 모습이 조금 불안하고 불안정한 모습 입니다.



이럴 때에는 편집-레이어 자동혼합을 클릭해주면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완성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어 완성된 파노라마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토샵이 없거나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심파일 자료실에서 “파노라마”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프로그램들이 많이 검색되며 그 중에서 파노라마 팩토리라는 프로그램을 권해드립니다. 때로는 감성 보다는 기술로 만드는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보느냐 그냥 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산과 바다의 광활하고 와이드한 모습을 담아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 위 기사는 지난 '202호(2009년 7월)'에 실린 기사로 독자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다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파노라마 사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께서는 02-2289-438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edstudio@edstudio.co.kr)

스튜디오 포토매직 대표 역임
노필름 대표
이동스튜디오 대표
13~19회 서울국제촬영마라톤대회 공식 촬영
www.EDstudio.co.kr

완성된 파노라마 사진.



장애를 넘어선 예술 혼(魂) 척 클로스



불우했던 유년시절과 자신의 장애를 딛고 미국의 대표적인 예술가로 우뚝 선 척 클로스(Chuck Close)

미국의 극사실주의 화가 척 클로스(Chuck Close)

척 클로스(Chuck Close, 미국)는 극사실주의 화가이자 사진가 그리고 판화가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현대 미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대한 자화상을 그린 캔버스를 무려 10만개 정도의 작은 마름모꼴 사각형으로 분해한 다음 각각의 사각형 안에 다시 사각형이나 원 혹은 폐쇄적인 형태의 선이 반복해 그려져 있는 작품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불우했던 유년시절

미국의 대표적인 아메리칸 포토리얼리즘(Photorealism, 사진처럼 사실적인 회화 기법) 작가로 알려진 척 클로스는 1940년 워싱턴 주 먼로에서 출생했다. 그는 덩치가 매우 컸으나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고, 난독증을 앓아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주위 사람들은 활동적이지 못한 그를 게으르고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척 클로스의 유년은 너무나도 불행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11살 때 운명을 달리했고 어머니 또한 아버지와 사별 후 모든 희망을 잃고 근근이 살다가 유방암에 걸렸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할머니도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근육의 강직, 진전증(떨림증), 몸동작이 느려지는 운동완서가 대표적 증상인 퇴행성 신경 질환)에 걸렸고, 척 클로스 자신 또한 심각한 신장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

었다.

‘그림’... 유일한 해방구

이러한 지옥 같은 생에서 그림은 그의 유일한 ‘해방구’였다.

그림을 그리며 세상과 소통했고,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미술 양식이 한창 유행하던 1950년대 어느 날, 잭슨 폴록의 추상화를 보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는데 그때 그의 나이 14세였다.

그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인식되는 것이 싫어 오로지 자신이 아는 지인들의 사진으로 작업을 하는 초상화만을 그렸다.

1960년대 후반 극사실주의 인물 화가로, 또 사진가로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척 클로스는 1972년 이래 지금까지 대형사이즈의 ‘판

화 작업’을 30년 이상 이어오고 있다. 인물 사진을 기반으로 제작한 그의 판화작품들은 100가지 색을 위해 100개의 판을 만들며, 때로는 한 작품을 위해 2년 이상 판화 공방의 장인들과 공동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은 그야말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로 악명이 높다는 고행(苦行)의 작업이다.

그는 1988년 예술대회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게 됐는데, 수상소감 바로 직후 엄청난 허리의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이송되었다. 척추혈관이 손상돼 하반신이 마비되었던 척추작용의 장애로 인해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붓을 놓지 않았다. 팔 대신 치아를 이용하여 붓을 입에 물고 작은 그림을 꾸준히 그려나갔다. 그는 불굴의 투혼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해나갔다.

그리고 그는 재활에 도전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그를 담당한 의사들조차 재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손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난 결코 재활이란 ‘작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란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그는 불굴의 의지로 재활에 성공했다. 지금은 팔과 다리의 부분적인 운동능력을 회복하여 손에 붓을 묶어서 화가 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그의 주위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기적(奇蹟)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껏 내 생에 쉬운 일이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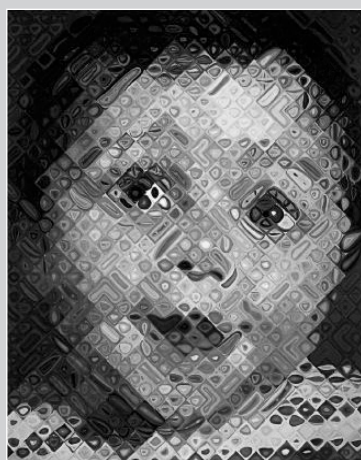
었다”

척 클로스는 어떻게 자신의 장애에 대한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는 그 원인을 지금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찍부터 자신이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알아차렸고 이런 재능을 이용해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어느 누구보다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내게는 다른 재능이 없었고 미술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그래서 내 재능의 달걀을 전부 한 바구니에 담았다”고 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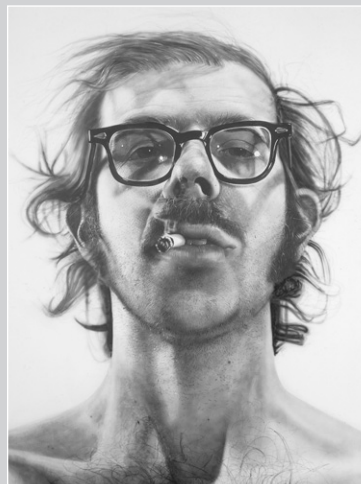
그리고 “나는 앞뒤 따지지 않고 한 가지 일에 매진해 왔다. 내게는 다른 재능이 없었고 미술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함으로써 내 재능의 달걀을 전부 한 바구니에 담았다. 이제껏 내 생에 쉬운 일이란 없었다”고 말한다.

척 클로스는 작품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했다. 그런 이유로 그의 작품엔 척 클로스란 예술가의 삶, 역경, 고난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불굴의 노력이 짙게 배어 있다. 그리고 관객들은 그의 작품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척 클로스의 삶에 배어 있는 깊은 감동과 향기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관객들은 그의 작품을 통해서 척 클로스의 삶에 배어 있는 깊은 감동과 향기를 엿볼 수 있다.

척 클로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투혼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걸어 나가는 주체자(主體者)였다.



척 클로스의 조카 엠마(Emma). 일본식 목판화 기법인 우키요에(Ukiyo-e)를 통해 113개의 색과 2년여의 제작기간이 걸린 작품.



척 클로스(Chuck Close)의 작품들



칼럼

조 윤 경(장애인 푸른 아우성 대표)

사랑이 뭘까?

(장애인들의 자존감에 대하여)

주부대상의 드라마를 보면 사랑에 배신당한 사람들이 복수하는 내용이 많다. 배신과 복수의 형태를 보면 한 때나마 사랑했던 사람들이 맞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일상서도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독 방송에서는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을 많이 다룬다. 복수를 원하는 이들은 모두 배신자에게 “사랑했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

나는 문득 사랑이 뭘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우리는 태어나서 사랑에 대해 유산으로 물려 받지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는다. 사랑을 모른다고 해서 야단을 맞지도, 돈을 못 벌지도 않지만 사랑에 목숨 걸고, 상처 받고 아파한다. 자신이 사랑한 깊이만큼 배신감과 복수의 집념도 강하다. 사랑은 각

자의 감정과 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답도 없고 사랑을 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하지만 최소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감정의 차이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괴롭게 하기도,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도 한다. 소유하고 쟁취하고 싶기도 하고 상대에게 무조건 바라고, 기대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감정, 즉 느껴지는 감정 그대로 표현하는 것, 상대보다 내가 우선이 되고 순간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은 즐겁고 유쾌한 것이다. 자신만 만족해도 된다. ‘자신의 기쁨’이 중심이 된다.

무엇이든 상대를 위해, 상대에 의해 움직이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고

민하게 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위해 참고 희생할 수 있는 것, 상대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고 이런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는 것, 아파서 눈물이 나도 좋은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상대와 자신의 행복’이 중심이 된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어서 자기 옆에 두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상대를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자신도 상대도 할퀴고 찢기게 만들 수 있다. 상대에게 배

신감을 느끼고 복수를 다짐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자신과 상대를 사랑했을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성패매 뿐만 아닐 것이다. 무슨 일이든 음지와 양지가 있으니까. 때문에 어디엔가 장애인 성도우미 제공자와 이용자들이 있다해도 그리고 이런 서비스와 이런 성생활이 본인들에게 만족하고 행복한 성을 누리는 것인지 충분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능적 욕구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성을 누리는 것도 우리의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푸른 아우성
조윤경 대표

2000/10-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출연
2000/1~2002.1 : 뇌성마비 모임 ‘어우러기’ 회장
2001/12- : ‘인간극장’ 출연
2002/4- : KBS ‘아침마당’ 출연
2002/5~ : 장애인 정보광장 ‘동인’ 회장
2003/3~2003.10 :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프랜드 케어’ 소장역임
2004 : 서울 디지털 대학 상담심리학부 재학
2005 : 에이블 뉴스 조윤경 성 칼럼 연재
2008~ : ‘새보람’ 조윤경 칼럼 연재
현 도봉푸른장애인독립생활센터 대표

독자투고

이경애(女, 45세, 뇌병변 3급)

작은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아들은 학교에 등교하여 느긋하게 차한잔 마시면서 화분에 물도 주고 꽃들과 대화도 하고 신문도 보고 책도 보면서 여유롭게 나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저는 시장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있는데 벽에 낙서가 적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벽을 아무렇게나 휘갈겨 놓은 낙서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염지만 엄마는 장애인 병신”

저는 정신이 멍해오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슬픔이 물려왔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 가슴이 울기 시작하더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저앉아 슬퍼하거나 원망만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이 낙서를 본다면 또 얼마나 괴로워하고 아파할까하는 생각에 얼른 집으로 들어가 수세미에 세제를 묻히고 나와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있

본지에 게재된 “아들아 미안해”는 지난 2010년 6월 25일(금)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의 주관으로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된 『제23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에서 글짓기 부문 대상(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한 이경애(여, 45세, 뇌병변 3급) 씨의 작품으로, 자랑스러운 아들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듬뿍 담긴 작품입니다.

“아들아 미안해”

는 힘을 다해 박박 문질러대도 낙서는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낙서만 지울 수 있다면 이까짓 아픔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낙서는 왜 지우면 지울수록 더욱 더 선명해 지는 것인지.

이렇게 저는 낙서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서 뒤돌아보니 작은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두 눈이 빨개져있었고 콧진 두 주먹은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아들 얼굴을 쳐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미안해...” 라는 말만 되뇌고 있을 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아들은 얼른 제 손에서 수세미를 빼앗아 낙서를 한자 한자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낙서는 아들의 눈물과 피로 한자 한자 지워지고 낙서가 지워진 벽에는 빨간 장미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작은아들은 낙서를 깨끗이 지우고 나서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낙서보지 못했어요. 엄마도 못 본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엄마한테는 아빠도 있고,

형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이까짓 낙서 아무것도 아니예요. 낙서는 지우면 되고, 또 있으면 또 지우면 되요. 제가 다 지울거예요.” 저를 꼭 안아주는 아들의 가슴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아들의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른 날보다 많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정성과 눈물이 들어갔습니다. 식구 모두 맛있게 먹는데 작은 아들은 엄지손가락을 세워가며 맛있다고 합니다.

“아들 많이 먹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것 밖에 없어.”라고 말하며 저는 작은 아들이 좋아하는 꽃게를 밥위에 얹혀 주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밥 먹는 모습이 참으로 예쁩니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비추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이 자식을 돌보고 키운다는 것은 자신의 심장을 조금씩 도려내는 아픔이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눈물과 아픔으로 조금씩 그리고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들!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끝〉

‘후원’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빌게이츠의 재산을 모두 1달러짜리 지폐로 바꿔서 뉴욕으로 운반하려면 보잉 점보제트기 300대가 필요하다. 이 돈을 맨해튼 전역에 빈틈없이 깔 경우 6겹으로 도배를 할 수 있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골고루 나눠 준다면 1인당 약 137달러씩 돌아간다. 이 돈으로 집을 산다면 알래스카·와이오밍·사우스다코타·노스 다코타 등 4개주의 가정집을 모조리 사들일 수 있다. 워낙 재산이 많아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다고 하소연하자 미국의 한 연구원이 알기 쉽게 풀어쓴 ‘빌 게이츠의 재산시계’에 나오는 분석이다.

‘벌면서 쓰고, 쓰면서 벌겠다’는 철학을 가진 현존하는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의 재산은 약 50조원 규모다. 그는 이 가운데 절반인 25조원을 기부금으로 내놨다. 그의 아내와 함께 벌어서 재미 보는 만큼 지속적으로 미국과 세계에 환원하고 있다.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다. 기부금을 내놓으면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때문이다.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부터 시작된 미국 기업인들의 기부문화는 이제 하나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다. 부자로 돈 끌어안고 죽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의식과 함께 기부에 대한 존경의 문화가 저변

칼럼 / 이코노미리뷰 김정한 편집국장

“존경의 문화”

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기부하고 사회에 공헌하면 후하게 대접해주는 것이 미국 사회다.

하버드·예일·스탠퍼드·밴더빌트 등 수많은 미국 대학들이 돈을 기부해서 학교를 세운 주인공의 이름을 존중하고 후세까지 기리고 있다. 조지 소로스·워런 버핏·테드 터너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유명인들 역시 엄청난 돈을 기부하면서 나름대로 존경을 받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부자들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우리 옛 말을 실천해왔다.

우리는 어떤가. 여름철 태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가면 마스크가 나서서 요란스럽게 모금행사를 벌이거나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정도가 기억에 남는다. 가끔 바느질해서 모은 돈 모두를 대학에 기부하고 양로원으로 들어가는 노인들을 대서특필하는 정도다. 아니면

은 나라가 목을 조여서 어거지로 받아낸 듯한 삼성의 8000억원 사회환원이 최근의 사례다. 우리는 돈을 기부할 만한 부자가 없어서일까. 문제는 바로 존경의 문화가 부족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명예롭게 대접받기를 원한다. 특히 부자들의 경우 정도가 심하다.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온 한 기업인의 얘기다. 자기 아들이 미국 대학에 진학 중인데 그 학교에서 기부금 요청이 왔다. 대학 총장이 직접 친필 편지와 함께 학교 설명을 해 줄테니 부부가 함께 방문해 달라며 호텔 예약과 1등석 항공티켓을 동봉해 정중하게 초청해와 거절할 수가 없었고 그 방문이 인연이 돼 적지 않은 돈을 그 학교에 기부하게 되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그 대학은 졸업식마다 초청을 하고 재학생들에게 연설할

기회를 주고 각종 배려와 존경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하면 더 내고 싶은 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반면에 국내 어느 재단에서 기부금 요청이 왔는데 조건은 돈만 내고 집행방법이나 처리절차에는 간섭하지 말고 빠져 달라고 해 몹시 섭섭했다고 한다.

깎아 내리고 헐뜯고 잘되면 배 아픈 게 우리 문화라고 자조하지 말고 존경의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정치인이나 언론이나 시민운동가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보다 뒤통수 잡고 싸움 붙이는 스토리를 재미있어 하는 한 존경의 문화로 가는 길은 하세월이다. 아마추어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프로나 전문가가 뒤통수로 밀려나는 현실에서 부자들은 할 말을 아끼고 은둔을 택한다. 나눔의 문화를 이해하고 만들어 나갈 수 없도록 만들면서 내놓으라고 욕박지르기만 하면 답이 안 나온다. 건강한 기부문화를 원하면 서로를 존경하는 저변의 문화코드가 형성돼야 한다. 10년 후 이견희 국제공향, 구분무 대학교, 정몽구 박물관, 최태원 건강재단이 만들어지도록 지금부터 부자들을 건전하게 감시하면서 아울러 존경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 협회와 232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회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회원구분

일반회원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후원금 납부방법

- 지로, 자동이체
-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

- ① 전화신청 : ☎02)796-4280
-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2010년 7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김경희, 김구환, 김유경, 김정빈, 김진호, 남용원, 남혁우, 민박상조희, 박소연, 박정현, 선병욱, 손영주, 송현, 신세계인천점, 신영숙, 양순연, 오현태, 유유미, 유재복, 윤순애, 윤채환, 이강구, 이민수, 이상돈, 이수현, 이운상, 이은정, 이지수, 이효민, 임채중, 임철현, 전원철, 정은연, 조태동,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주영우, 최문선, 최인준, 허찬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자에게는 ‘월간 새보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응
모
요
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시면 정답자를 추천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답
힌
트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의자식의 탈것.

★1				2		
		3			4	
5						
				★6		7
8		★9				
10						



지난호 정답

	★1 리	니	2 지		3 검	도
4 등	본		5 천	안	문	
용		6 결	명		7 소	8 트
9 문	10 화	재		11 콩		랜
	과		12 테	★트	13 리	스
14 세	자	15 사			늑	
포		16 골	★프		17 스	키

| 가로열쇠 |

1. <동물>연골어강 악상어목의 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몸의 길이는 0.4~18미터이고 방추형이며, 방패 비늘로 덮여 있다. 지느러미가 발달하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 체내 수정을 하고 난생과 난태생이 있으며 민첩하고 사납다.
3. 사자성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5. 관찰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 나무를 수집하여 재배하는 시설.
6. 손 떨림증.
9. 조선 숙종 때의 어민(漁民).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를 자주 침범하자 일본에 가서 우리 영토 침범을 항의하였다.
10. 두 개 이상의 볼록 렌즈를 맞추어서 멀리 있는 물체 따위를 크고 정확하게 보도록 만든 장치.

| 세로열쇠 |

1. <식물>사철 내내 잎이 푸른 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소나무, 대나무 따위가 있다.
2. 물건을 구하기 어려움. 예) 더위가 심해서 선풍기가 ○○ 현상을 빚고 있다.
3. 종교의 교당을 통틀어 이르는 말. 예)노트르담 ○○
4. 고려 말기 · 조선 전기의 문인 · 학자(1342~1398). 자는 종지(宗之). 호는 삼봉(三峯). 이색의 문인으로, 조선 개국 일등 공신이 되었으며 전략, 외교, 법제, 행정에 밝았으며 시와 문장에 뛰어나 ‘고려사’ 37권을 개수하고, <남씨가>, <신도가> 따위의 악장을 지었다.
6. 수영할 때 입는 옷
7. <법률>증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
8. 피하거나 쫓기어 달아남
9. 시력이 나쁜 눈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나 바람, 먼지, 강한 햇빛 따위를 막기 위하여 눈에 쓰는 물건.

7월호 정답

리프트

당첨자

이명신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고정문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신영철 충남 아산시 둔포면

틀린크림찾기 DIFFERENT SEARCH



매달 정답자 세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쉬는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로부터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폼클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틀린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천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 장애인 콘테스트



장애를 주제로 다양한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적인 예술적 소질의 개발과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로 이끌기 위한 **스타장애 예술인 콘테스트!**
끼와 열정을 가진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장 소 **서울시청열린광장**
경연대회 **2010.9.17 금 15PM~17PM**
시 상 식 **2010.9.17 금 17PM**
경연부문 **음악 노래.악기 | 댄스 | 개인장기**

참가자격 | 장애인복지법상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연령 제한이 없음. 장애인이 포함된 팀으로도 참가 가능
공모목적 | 전국에 활동하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예술가들이 장애를 주제로 다양한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발표의 기회 제공
응모자격 |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모든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원자
응모분야 | UCC 음악 노래.악기 | 댄스 | 개인장기 3분~5분 이내 | avi. mpeg. wmv. swf 파일 | 100MB 이하로 제작
공모기간 |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 8월 30일 월요일 오후 5시 까지
시상내역 | 대상 1명 Team | 금상 1명 Team | 은상 2명 Team | 동상 3명 Team | 장려상 4명 Team
예선심사 | 2010년 9월 3일 금요일
예선심사결과발표 | 2010년 9월 3일 금요일
본 선 | 2010년 9월 17일 금요일
문 의 | 스타 장애 예술인 콘테스트 담당 T. 02-2289-4332

주최 | **한국ppi**
주관 | 2010 장애인문화예술국민대축제조직위원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협찬 | **POSCO**

2010 장애인문화예술국민대축제 조직위원회
130-864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 대산빌딩 3층
Tel. 02. 969. 0419 / 0420 Fax. 02. 969. 0426 www.dpifestival.org